

## 목포해수청, 상반기 항내 공유수면 일제점검 실시

- 6월 9일 ~ 26일, 불법행위 및 안전 위해요소 집중점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운영자)은 오는 26일까지 항내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행위와 점용·사용 시설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선가대 등 조선 관련 시설 10개소, 유류저장부선 등 위험물 관련 시설 3개소, 해상테크 등 국가·지자체 관리시설 24개소, 부잔교 등 계류시설 2개소, 해수인입관 등 기타시설 5개소 등 총 44개소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허가사항 변경 여부 및 사용실태,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등의 위법행위 여부와 시설물 안전관리, 해상교통 위해요소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과 고발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목포해수청 나명숙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정기적인 일제점검으로 목포항 내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기관명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책임자	과 장	나명숙 (061-280-1670)
담당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담당자	담 당	김 철 (061-280-1671)
			주무관	정경훈 (061-280-1709)